

“이웃 잘살아야 저도 행복하죠”

아산 효행대상 받은 송복녀 보살

‘고래할매’는 암남동의 좁은 이골목 저골목을 돌아 다니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부산 송도 앞바다가 내다보이는 서구 암남동에서 ‘고래할매’ 하면 모르는 이가 없는 송복녀(59·흥천화)보살. 새벽5시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향피워놓고 관세음보살을 영송한 후 동네 여기저기를 기웃거린다.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웃들에게 밤사이 무슨일이라도 생기지 않았나 내 일처럼 챙겨주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고래할매해장국집을 운영해서 얻게 된 별명 ‘고래할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때론 어머니같이 때론 딸같이 친근한 존재이다. 고래할매는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집을

독거노인 초청 경로잔치 친딸처럼 식사·빨래 수발 20년째 동네 길흥사 챙커

일일이 찾아다니며 청소, 빨래, 밀반찬까지 해주는 서구 자원봉사자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출산, 초상, 화갑, 결혼식 등 길흥사를 가리지 않고 챙기고 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고래할매 송복녀씨에게 연락을 한다.

송보살은 9일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주영)의 제3회 아산효행대상에서 경로부

문 대상을 수상했다. 독거노인에게 경로잔치 배틀기, 회원들과의 연례로 말벗되어주기, 경로식당(식대 100원)운영,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주선, 천마재활원 방문 등의 봉사활동이 송보살에게 상을 안겨준 것이다. 그러나 송보살에게 진정한 상은 이웃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 아들이 소아마비로 장애인 이 되면서 고통을 겪었던 송보살이었기에 자신보다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이웃의 고통이 곧 내 고통이었기에 부모없는 조카들을 키우고 노인이나 노동자에게 식당밥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남은 것을 조금씩 나누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송보살은 얼마전부터 빵집을 돌려 남는 빵을 수거, 매일 아침 소년소녀가장에게 배달해 주는 일을 시작했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하와이 '대원사'



◇미국 하와이 대원사 불교문화원 전경. 원내는 주지 도현스님.

문화원 지붕 낮추기 '후원율'

재공사비 4억원 필요
다목적용도 4층 건물
WFB대회 유치 추진

“불교문화원 마우리 불사를 위한 만능불사에 실시일반의 동참을 필요합니다.”

최근 고국을 찾은 대원사 주지 도현스님은 “대원사가 부처님의 위대한 정신과 한국문화를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 널리 알리는 도량으로 거듭나는 그 날, 불자들의 거룩한 원행을 호반전신과 제불보살님 앞에 널리 청송할 것”이라며 불교문화원 건립 만능불사에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대원사(전화 080-735-7858)는 75년 기대원스님이 현직교인들의 원력을 받들어 불사를 시작, 82년에 대웅전과 명부전 종각 사리탑을 완공, 해외 한국사찰로는 가장 규모가 큰 사찰이다.

대원사 불교문화원은 88년 건물 공사를 마쳤으나, 호놀룰루시 당국에서 허가해준 높이보다 높다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더 이상 건축할 수 없었다. 최근 하와이법원으로부터 지붕을 낮추라는 판결이 나오며 따라 재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설

계·시공비 30만달러(약 4억원) 마련을 위해 대원사 신도들이 강릉을 모으고, 만두 감치된장 등을 만들어 팔고 있다.

불교문화원은 전통사찰건축양식의 4층 건물의 총건립 4천평 규모로 다목적 전사실과 세미나실, 회의실, 법당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150명이 묵을 수 있는 방사도 마련해 상시 수련회 개최한다. 인근 20분 거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이키키 해변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참선과 레저를 겸한 독특한 선수행 프로그램도 개설할 계획이다. 도현스님은 또 2002년 WFB(세계불교도우의회) 대회를 대원사에 유치해 세계에 한국불교를 제대로 알리는 사업의 추진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다시 하와이로 돌아간 도현스님은 “여러 국내외 불자들이 앞에 다시한번 공덕행을 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거듭 고국불자들의 후원을 당부했다. 96년 2월 대원사 주지로 취임한 도현스님은 70년 해성스님을 은사로 도선사로 출가, 버클리대학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북경대에서 범어문학을 전공으로 박사과정중에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성철스님 사리탑 준공법회

내달 8일 해인사...최재은씨 설계 높이 34m

성철스님문도회(회장 원택스님)는 스님의 열반 5주기인 11월8일 성철스님사리탑 준공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해인사의 일주문부 1백m 지점에 건립되는 사리탑은 설치예술가인 최재은씨가 설계한 것으로 높이 3.39m. 조경을 제외한 연면적 1백8평규모에 성철스님 사리와 유골을 봉안해 놓았다.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 건설부는 지난 97년 3월1일부터 98년 10월말까지 건축비 12억여원을 들여 완공했다. 석재는 인도의 사원건축에 사용되는 '애석'이 사용됐으며 기단부는 우리나라에서, 참배대와 사리탑은 일본에서 각각 제작했다.

한편 사리탑의 규모가 너무 큰데다 일본에서 제작한 것은 평소 무소유를 주장하고 왜색불교 퇴치에 앞장서 온 스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를 맡고 있는 양근택소장(삼성물산)은 “대형석재의 원형절삭이나 컴퓨터절삭은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일장이라 일본에서 제작한 것으로 한다”라고 말했다.

성철스님문도회와 신도들은 열반 1주기때부터 7일7야 8만4천배 참회기도를 봉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11월 1일 오전 7시부터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에서 참회기도에 돌입한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수해 희생자 위령제

무량사 건물 붕괴 위험

인근 아파트 공사로...벽 금가고 지반침하

부천 무량사(주지 법신)가 인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로 사찰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훼손이 심각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무량사는 지난 96년부터 두산건설이 8백50여세대가 입주하는 24층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하면서부터 소음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또 두산건설측은 무량사 앞으로 진입로를 만들며 인접민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반을 침하시켜 건물의 균열이 발생, 붕괴의 위험마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대는 상하수도도 정화조가 묻혀있어 주민들도 무원칙적인 공사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두산은 진입로를 현재의 위치보다 2m 정도 깎아내고 공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사찰이 절벽위에 몰릴 우려마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태이다.

주지 법신스님은 “두산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량사측은 이같은 피해에 대해 지역 주민 부천사임연합회와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수해 희생자 위령제

지난 8월 발생한 개천대람 집중호우로 희생된 영가가족들이 의정부불교사임연합회(회장 해승)가 10일 의정부 시청앞 광화의 광장에서 주최한 제5회 남북 통일기원 영산대재 및 수해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참석, 오열하고 있다. 의정부 양주불교사임연합회는 이날 수해희생자 10여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김종근 기자

대광맹인불자회

청림 7들 기념법회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11일 남산동 소재 법당에서 창립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화사 포교국장 지거스님과 동화사 포교원 관오스님, 대광맹인불자회 회장, 대구신행단체연합회 유상종회장 등 지역 신행단체장 및 회원 2백여명이 참석했다. 지거스님은 법문을 통해 “수많은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밝은 등불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분사 갖바위와 정법회 장지현 조직부장이 각각 감사패를 받았다.

김태경 기자

송광사·화엄사·대흥사 일대

사적·명승문화재 지정예고

문화관광부는 15일 전남 순천시 소재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등 3건을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예고했다.

조계산은 삼보사찰 중의 하나인 송광사 송광사와 선암사가 자리잡고 있으며, 경내에는 국보 제56호 국사전을 비롯해 국보3점, 보물20점, 천기1점, 도지정22점 등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은 식생이 잘 보존되어 있고, 통일신라시대 이래 수많은 고승을 배출한 화엄사가 있다. 사찰 내에는 국보 제67호로 지정된 각황전을 비롯한 국보 4점, 보물 5점, 천기 1점, 도지정 4점이 있다. 75년부터 명승으로 지정 보존되어 왔던 대둔산은 조선시대 서산대사의 의발을 봉안한 이래 수많은 고승을 배출한 대흥사가 있다. 경내

에는 보물 4점과 천연기념물 1점, 도 유형문화재 8점이 있으며, 현재 대흥사 일원은 도문화재 자료 제78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

호남의 5대 명산 중 하나이자 천관산 장안사 등이 위치해 있는 전남 장흥 천관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다.

전남도는 1일 장흥군 관산을 농안리 천관산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천관산 일대를 지방문화재가 있고 5백85종의 식물이 자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라는 점을 들어 지난해 10월 환경부에 도립공원 지정 승인을 요청했다. 김지연 기자

박애희양 최우수상

부산 '맑고...' 글짓기 대회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홍교)은 9일 한글날을 맞아 부산역 광장에서 제1회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글짓기대회에는 ‘아버지’라는 주제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작품을 실시한 결과 김태희(통영여상 3), 선미선(부산여중 3), 박애희(부산진초등학교 4)학생이 각 부문 최우수상을, 정다은(학산여고 2년) 학생 등 3명이 우수상으로 선정, 상장과 장학금을 받았다.

천미희 기자

불교미술연구소


사찰조경 및 건축설계와 불상, 불화, 단청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대학교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불사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02-285-5963
019-285-5963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건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 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대구여래한방)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의 영양함을 직접 음식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출선식, 슬효소정액,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 불로화정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습니다.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慧明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총복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을 만든 경옥고(慶玉膏)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益壽永進膏)」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총복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출선식(松仙食)」「슬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람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655-2227
(011)808-8880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는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된 감자를 먹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지 밝혀낸 「세시미」 성분을 대량

-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